

배포 일시	2022. 9. 28.(수)		
담당 부서	자동차정책관	책임자	과 장 박진호 (044-201-3847)
	첨단자동차과	담당자	사무관 이 향 (044-201-3852)
보도일시	2022년 9월 29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28.(수) 16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국토부, 모빌리티 혁신 이끌 민간 육성에 힘 쏟는다!

### - 자율주행 중소·새싹기업 연구지원시설 ‘미래혁신센터’ 개소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28일 화성 ‘케이-시티(K-City)’에서 자율주행 중소·새싹기업 대상 연구지원시설인 ‘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’를 개소한다고 밝혔다.

○ 개소식에는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, 자동차안전연구원 엄성복 원장 및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갈 새싹기업 등 유망기업들\*이 다수 참석하여 센터의 개소를 축하하고, 자율주행 기업 간담회도 병행하여 개최될 예정이다.

\* (시간) 10:30 ~ 12:00 / (1부) 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 개소식 (2부) 기업 간담회

\* 10월부터 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에 입주할 예정인 포티투닷, 오토노머스에이투지, 라이드플렉스, 이래에이엠에스, 네이버랩스, 모라이, 삼송, 아우토크립트 등 8개 기업

#### ① 1부 : 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 개소식

□ ‘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’는 경기도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, 국내 최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케이-시티와 연계하여 실증 인프라와의 시너지효과를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었다.

○ 케이-시티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다양한 주행상황에서 반복시험하면서, 동시에 데이터 분석, AI 알고리즘 수정, 차량·센서 수리 등 연구개발과 정비활동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.

- 올해 말까지 무상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인 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에는 공모절차\*를 통해 선정된 자율주행 관련 분야 총 8개 기업이 10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.

\* (공고·접수) 7.18 ~ 8.12 → (평가) 8.16 ~ 9.2 → (최종선정) 9.5 → 계약 및 입주절차 진행 중

- 입주기업 중 중소·새싹기업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율주행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임대료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며, 입주 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시험시설 이용과정에서 필요한 사무 공간 등을 이용할 수 있다.

< 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 개요 >

- (목적) 케이-시티를 이용하는 중소·새싹기업의 차량 이동 비용(개발 위치 → 테스트베드), 기술유출 부담 등 경감을 위한 창업·업무 공간 지원
- (사업기간 / 사업비) '19. 4월 ~ '22. 6월 / 69.6억원(정부출연)
- (규모·시설) 건축연면적 1,966㎡ 2층 규모, 입주형 사무실, 공유형 사무실, 회의실, 차량정비고, 보안차고, 휴게실, 전기차 충전시설 등 구비
- (추진경과) 준공('22.6) 후 인테리어 및 입주기업 공모 선정(10월 입주)

**② 2부 : 자율주행 기업 간담회**

- 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 개소식 이후에는 미래혁신센터에 입주 예정인 8개 기업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율주행 기업 간담회를 진행한다.

- 이날 간담회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「모빌리티 혁신 로드맵」을 발표한 이후 처음 갖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업계와의 만남의 장으로, 로드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청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- 이 자리를 통해 케이-시티 시험시설 고도화계획과 무상 운영방침\* 등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소개하고,

\* 레벨4 자율차 상용화 정부 목표에 맞춰 '27년까지 무상운영 연장(케이-시티 개방 '18.12) 이후 중소·새싹기업 등을 대상으로 '22.6월까지 한시적 무상운영 추진)

-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△국민의 자율주행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, △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, △보안, 통신 등 자율주행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에 힘써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“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가 모빌리티 혁신의 주인공이 될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인큐베이터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”이라며,
  - “국내에서도 머지않아 자율주행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고 세계 유수의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데에 정부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 라고 밝혔다.